

## 2025년 12월 태국 관광시장 동향

'25. 12. 26(금) /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 □ 태국 관광시장 동향

#### ○ 태국 남부 홍수로 한 주간 입국자 8% 이상 감소

- 태국 남부 홍수(11. 24)의 영향으로 12. 3 기준, 주간 외래 관광객 수는 63만 5,217명으로 전주 대비 8.12% 감소했으며, 특히 남부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주간 입국자 수는 4만 4,067명으로 전주 대비 42.36% 급감했음.

#### ○ 관광청(TAT), 태국 연휴기간동안 국내여행 252만 건 전망

- 관광청(TAT)은 최근 정부의 국내여행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12. 5. ~ 7. 연휴 기간 동안 국내여행은 252만 건 유치했으며, 이로 인한 관광지출은 103억 바트(약 4,7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연휴 확대에 의한 여행 수요 증가, 예년보다 빠른 기온 하락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 JCB, 태국 고소득층 해외여행 지출 20% 증가

- 태국 JCB 카드 통계에 따르면, 25년 1~10월 해외여행 지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프리미엄 카드 보유자의 주요 인기 목적지는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중국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 지출은 26% 가량 증가함.

#### ○ 2025년 외국인 관광객 감소세 확인 및 2026년 전망

- 25.12.21. 기준, 2025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1.76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5% 감소함. 이는 남부 지역 홍수와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 등 부정적인 상황으로 성수기인 12월에도 뚜렷한 반등이 약세임.
- 2006년의 외국인 관광객 수를 약 34.9백만 명으로 전망하며, 관광 수입을 포함한 전체 관광 수입이 약 2.79조 바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 태국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2026년 아시아 중심으로 확대 전망

- Trip.com Group의 2026년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을 포함한 ASEAN 국가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2026년에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태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에게 선호되는 목적지로 부상함.

- 일본은 2026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국을 포함한 ASEAN 국가 여행객들이 대거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됨. 일본의 문화유산, 현대적인 도시 환경, 음식 콘텐츠가 주요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쿄와 오사카는 글로벌 최상위 방문 도시로 지속 언급되고 있어 태국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일본 여행 수요가 단기 유행이 아닌 구조적 수요로 정착했음을 시사함.
- 중국 아웃바운드 수요 역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됨. Trip.com은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 출발 중국 노선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음.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주요 대도시뿐 아니라 베이징, 시안 등 2선 도시로의 이동도 증가하고 있어, 태국 여행객의 중국 여행 목적지가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비자 완화 정책, 항공 공급 확대, 가격 경쟁력 회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2026년 태국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중국은 핵심 회복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 ○ 에어아시아, 비자면제 정책 기반 중국 노선 확대

- 태국 저비용항공사 Thai AirAsia는 중국 비자면제 정책 시행 이후 중국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중국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신규 프로모션을 추진함. 동 프로모션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편도 2,026바트(약 9만원)부터 항공권을 판매하고 수하물 추가 시 최대 65% 할인 혜택을 제공함.
- 아울러 중국 관광 수요 회복에 대응해 광저우, 선전, 청두, 상하이, 시안, 항저우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중국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말부터 10대 중국 도시 대상 주당 55편 운항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등 중국 주요 도시 노선에 대한 공격적인 운항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 정부정책 동향

#### ○ 태국 정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관광 경기부양 정책 추진

- 태국 관광·체육부는 하원 해산 이후에도 관광 정책 추진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함.

- 관광·체육부 장관 Artthakorn Sirilatthayakorn은 차기 내각 회의에서 태국 국민 대상 국내여행 패키지 가격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Tour Thai Khon La Khreung’ 공동부담 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선 항공권 20만 장 무상 제공 방안 등 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안을 상정할 예정임.

## □ 기타 동향

### ○ 태국, 중국 대형 플랫폼 연계 디지털 관광 파트너십 추진

- 태국의 Digilink Thailand가 운영하는 관광 플랫폼 “Wei TaiGuo와 중국 생활서비스 플랫폼 운영 기업 Meituan-Dianping 간 협력을 통해 태국 음식점, 관광지를 중국 소비자 6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중소 관광·서비스 업체의 중국시장 접근성 제고가 기대됨.
- 이는 11. 27. Thailand Dianping Summit 개최와 더불어 태국-중국 수교 50주년 시점과 맞춰 추진된 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관광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및 태국 관광체육부 홈페이지 통계 자료 참고, 항공사 및 여행사 동향 정보 수집, 태국 관광청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종합

1.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59108> (nationthailand, 251202)
2.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49040/jcb-targets-wealthy-thai-credit-card-customers> (bangkokpost, 251203)
3. <https://www.khaosodenglish.com/tourism/2025/12/14/thailand-tourist-arrivals-fall-to-32m-amid-challenging-2025/> (khaosodenglish, 251214)
4.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62108/thailands-foreign-tourist-arrivals-down-725-yearonyear-so-far-this-year> (bangkokpost, 251223)
5.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59834> (nationthailand, 251215)
6. <https://www.thansettakij.com/business/tourism/646885> (Thansettakij, 251218)
7.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55614/ministry-to-push-forward-steps-to-stimulate-tourism> (bangkokpost, 251213)
8.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49075/thailand-launches-chinese-platform-partnership> (bangkokpost, 251203)

## 붙임

## 한-태 관광통계 및 항공운항 정보

### ○ 한-태 관광통계

(태국인 방한규모) '25.11월 기준 30,194명

구 분	'25.8월	'25.9월	'25.10월	'25.11월 (* 추정치)
태국 → 한국	18,844명	21,535명	40,937명	30,194명
('24년 대비)	(12.3%)	(14.1%)	(1.9%)	(4.4%)

(한국인 방태규모) '25.11월 기준 130,251명

구 분	'25.8월	'25.9월	'25.10월	'25.11월
한국 → 태국	133,995명	101,672명	136,382명	130,251명
('24년 대비)	(-14.2%)	(-24.0%)	(-4.2%)	(-15.7%)

### ○ 항공동향

(한-태 항공노선) '25. 12월 말 기준 주 213편 운항

항공사	주간 운항현황
대한항공	방콕-인천 주 35회 (매일 5편 운항)
	푸켓-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아시아나항공	방콕-인천 주 11회 (일, 월, 수, 금 및 매일 1편 운항)
	푸켓-인천 주 14회 (매일 2편 운항)
타이항공	방콕-인천 주 21회 (매일 3편 운항)
제주항공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방콕-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진에어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방콕-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티웨이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방콕-대구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에어아시아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에어부산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방콕-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에어프레미아	방콕-인천 주 6회 (일, 화, 수, 목, 금, 토 운항)
이스타항공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치앙마이-부산 주 7회 (매일 1편 운항)
타이 비엣젯	방콕-인천 주 7회 (매일 1편 운항)
<b>총 계</b>	<b>주 213편</b>